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1. 30

곳에서 모의사냥으로서 사냥거리와 동물공희

임 장 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Im, Jang-hyuk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olklore,
Chungang University

1. 머리말
2. 모의사냥으로서 사냥거리와 제물
3. 타살·군웅거리의 동물공희
4. 맺는말

곳에서 모의사냥으로서 사냥거리와 동물공희

임 장 혁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1. 머리말

무당이 주관하여 행하는 곳중에는 사냥하는 과정을 모의적으로 행하는 제의적인 곳거리인 사냥거리가 있다. 사냥거리는 ‘사냥놀이’ ‘사냥거리’ ‘산신놀이’ 등 지역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황해도의 대동굿과 만구대택굿, 서울 우이동 삼각산 도당제, 경상도의 범굿 그리고 제주도 무당굿의 산신놀이 등은 모의적으로 사냥하는 과정을 무당과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즉흥적이고 흥미롭게 진행된다. 이러한 사냥거리는 굿의 과정 중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례라기보다는 극적인 형태의 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사냥놀이 중에서 학계에 널리 알려진 황해도 만구대택굿이나 소놀음굿 등과 서울 우이동 삼각산 도당제의 사냥거리는 신에게 제물로 받쳐질 소, 돼지 닭 등을 마련하기위해 사냥하는 거리로 정의되고 있다.¹⁾ 사냥에서 얻은 동물은 제물로 사용되어 타살거리와 군웅거리가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타살·군웅거리는 제물의 도살·해체·제물의 부위별 의례적 사용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동물공희 의례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제물로 동물이 사용되는 의례에는 무속의 굿뿐만 아니라 동제·농경민의 기우제·건축의례·장례 등의 공동체의례뿐만 아니라 장례와 같은 개인의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의례에서 동물공희의 의미는 의례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황해도 굿과 우이동 삼각산 도당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제수(祭獸)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이를 의례적으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사냥거리는 가축으로 제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냥을 통해 얻은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 이 글은 중앙대학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 되었음

1) 양중승, 2003, 『황해도굿』, 『한국의 굿』, 민속원, 44쪽.

타살·군웅거리의 동물공회과정에서 드러나는 도살·해체·의례적 사용의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수를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물공회’란 용어로 개념 정립하고자 한다. 엘리아드(Eliade, Mircea)의 『종교학사전』에서는 희생(sacrifice)을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공물(offering)과 희생(sacrifice)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 하고 있다.²⁾ 즉 희생의 개념에는 피를 동반하지 않는 공물(Bloodless offering)과 피를 동반하는 공물(Blood offering)로 구분된다. 전자는 제주(祭酒), 과일, 떡, 곡물 등과 같은 소중한 제물을 초자연적 존재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후자는 동물이나 인간의 증물(贈物 gift)로서 피를 보이는 희생적 행동이 의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동물희생’이란 의미는 엘리아드의 ‘희생’에 대한 정의를 참고로 한다면 ‘피를 동반한 희생(Blood sacrifice)’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동물공회’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공회(供犧)’의 사전적 의미는 공물(offering)과 살아있는 제물의 희생(victim)을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모의사냥으로서 사냥거리와 제물

가. 야생수(野生獸)에서 사육수(飼育獸)로

황해도 곳은 제장(祭場)을 정화하고 나서 곳에 모셔질 신들을 부르기 위한 산청울림, 상산맞이, 초감 흥거리부터 시작된다. 잡신이나 부정을 물리쳐 정화하고 난 다음, 신들을 모시고 축원을 위한 칠성거리나 제석거리를 행한다. 칠성신은 수명을 담당하는 신으로 안당에서 칠성거리를 하는데 육식은 피하고 소찬을 올린다. 칠성거리는 거상춤, 사면춤, 바라춤을 추며 명덕과 복떡을 팔기도 한다. 또한 쌀을 주는 요미성수님도 칠성거리에서 강림한다고 한다. 제석거리는 무녀가 칠성복을 입고 마마병을 퇴치하는 별상물림을 하는데 가공의 배를 만들어 바가지에 액을 담아 바다로 띄워 보낸다. 이어서 행하는 소놀음거리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마을 곳으로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한판 논다. 소놀음거리는 농사의 과정부터 수확까지의 과정인 내농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농신(農神)인 소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으로 농경적인 요소가 강하다. 소는 육식을 하지 않는 초식동물이기에 소찬으로 떡과 과일 등을 올린다. 각 거리의 신들은 육식의 여부에 따라 제물을 마련하는데 농경신이나 육식을 하지 않는 신에게는 떡이나 과일을 올린다. 이어서 육식을 하는 신들을 위한 거리는 사냥거리부터 시작된다. 사냥거리는 군웅상을 마련하고 곳이 시작된다. 군웅상은 사냥에 쓰일 활과 화살을 상위에 놓고 과일

2) Eliade, Mircea et al., 1987,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sacrifice』(12), pp 544-557.

과 떡으로 차려 놓는다. 활과 화살은 실제로 사냥에 쓸 수 있는 사냥도구라기보다는 모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군웅상의 한쪽에는 제물로 마련한 돼지나 닭을 묶어 놓는다. 사냥거리는 가축을 제수로 마련하였지만 이들이 사냥하여 얻은 것임을 극적으로 보여준다.³⁾ 사냥거리의 등장인물은 상산막동과 경관만신이다. 우옥주의 만구대탁긔의 타살거리에서는 경관만신이 사냥을 나갈 때에 따라오는 상산막둥이를 부르기 위한 노래로 매타령을 부르는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⁴⁾

소를 잡아서 대택인가 돼지를 잡아서 대택인가 닭 잡아서 서낭인데
 서왕님 보충을 돌아 일러 만구나 대택을 받으시고 대한민국 물 밝혀주고
 두지 농사를 주질 말고 일대 대동에 도당일러 어진 태평생 열어놓고
 소집사 중집사 대집사를 줄줄이 느리워서 가진이 풍악을 돈쳐 세워
 물결두 잔잔 바람두 잔잔 물결두 잔잔한데 전변 산골에 가진 풍악이 웬 말이던가
 여파 여봐라 말듣거라
 이런 정성에 타살 영산 타살에 군웅두 놀구나구 타살에 글안지도 놀구 날 적에
 꼬리가 달려서 맹맹인가 돼지를 잡아서 타살하니 대수 대명 다 받아나구
 뒷전 앞전을 말려주며 삼년 세력을 세워 나가잔다

매타령은 타살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매사냥을 노래로 한 것으로 만신이 상산막둥이의 안내로 서낭이나 군웅에게 바칠 제물인 돼지나 닭을 얻기 위해 사냥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산막둥이는 높고 깊은 산속에 살면서 신의 부름을 받고 만신의 곁판에서 일하는 영험한 동자이다.⁵⁾ 그는 산길과 산속의 짐승이 있는 곳을 잘 알기 때문에 만신이 사냥을 나갈 때에 도와주는 역할로 설정되어 있다.

김금화의 서해안 대동긔 및 풍어제는 황해도 다른 곳의 순서와 대체로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서해안 대동긔의 사냥거리는 만신과 막둥이가 사냥을 나가며 사냥타령을 부르며 시작한다. 만신과 상산막둥이가 사냥을 나서는 데, 만신은 베두루마기를 입고 평범한 치장으로 등장하지만, 막둥이는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에 새끼줄을 동여매고 얼굴에는 칠성금(점)을 그려 이인(異人)으로 가장하여 등장 한다. 만신과 상산막둥이가 사냥에 나서서 별로 성과가 없기에 장구잡이와 만신이 다음과 같이 재담을 나눈다.⁶⁾

만신: 녹음메(제단에 올리는 밥)를 온갖 정성드리고 다녀 봐도 없음네

3)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산 돼지의 다리를 묶어 사냥거리에 사용한 후에 이를 해체하여 타살거리에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허가받고 도살된 돼지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4) 홍태한, 2006, 『한국의 무가 6 황해도무가』, 민속원, 137쪽.

5) 양종승, 2003, 앞의 책, 45쪽

6) 하효길, 2004, 『풍어제무가』, 민속원, 175쪽.

장구: 무슨 정성을 어드렇게 했길래 그럼니까

만신: 정성을 잘 드렸답네

장구: 어디 얘기를 해보쇼

만신: 오쥬국에 머리감고 똥국에 미역감고 궁둥이로 절했음네

장구: 그렇게 하니 되겠시까 부정해 안됩니다

만신: 궁둥이 가지고 안되는 일이 없답네

임금님도 낳고 또 나 같은 나라만신 우리 막둥이 같은 아들도 생기고

장구: 어서 다시 정성이나 잘 들보시오

(만신 앞에 가서 떡을 놓고 절을 하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장구 앞에 와서)

장구산에서 정산으로 와서 명석산에 공을 드렸드니

각령 까치산에 가보니 너럭바위 밑에서

녹용이 잠이 들어서 명석산으로 내려 쫓았음네

상산막동과 만신은 산에 가서 산삼, 녹용을 얻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를 명산대천에 녹음매를 올리는데 부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부정의 원인은 목욕재계할 때에 부정물인 배설물에 의한 것으로 산신의 소유물인 사슴이나 산삼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다시 정성을 들여 녹음매를 올리고 난후에야 비로소 녹용을 얻게 된다. 정성을 드리기 위해 장구와 정에 제를 올리는데 이를 ‘장구산’과 ‘정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장구와 정을 산에 비유한 것이다. 또한 산신으로부터 산삼을 얻기 위해서는 산신제를 정성껏 지내고 난 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산지민(山地民)은 신의 관할영역이 산이고, 짐승이나 나무 등은 산신의 소유물이기에 정성들여 산신제를 지내야 산신의 소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사냥이나 채취활동의 성과는 산신이 자신의 소유물인 산짐승이나 약초를 사냥꾼에게 내주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냥타령에는 산지민의 산신관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옥주의 만구대택곳에서는 사냥거리가 독립된 거리로 행해지지 않으며 군웅거리에서 사냥거리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군웅거리의 만세받이는 “사냥가세 사냥가요 명산대천에 사냥가요”로 무가가 시작된다.⁷⁾ 만세받이는 전국의 명산인 계룡산, 지리산, 금강산, 태백산, 한라산 등을 열거하며 사냥을 나가는데 포도수, 사냥꾼, 물이꾼 등 15명이 참여하여 산짐승을 잡기 위해 나서는 것으로 노래되고 있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구성은 실제 공동사냥에서의 구성원·역할과이 거의동일하기에 사냥거리가 단순한 놀이랑기보다 제수가 사냥꾼에 의해 얻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냥거리는 서해안 대동곳이나 소늘음곳에서는 독립된 거리로 행해지지만, 만구대택곳에서는 타살거리나 군웅거리에서 사냥거리의 내용이 결합되어 행해진다. 사냥거리가 독립된 거리인가 또는 결합된 거리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곳은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임의적으로 재구성되기도

7) 홍태한, 2006, 앞의 책, 98쪽.

하기 때문이다. 단지 모의극으로 사냥거리는 제물로 마련된 제수가 사냥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만신의 사냥을 안내하는 상산막둥이는 산을 잘 아는 인물로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에 일곱 개의 점을 그려 이인(異人)으로 가장(假裝)하고 있기에 평범한 차림의 만신과는 대비되고 있다. 막둥이는 본래 만신의 아들이지만 오랫동안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산에서도 오랫동안 살아온 인물이며 인간세계에서 산이라는 성역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사냥에서 얻은 제수는 산신제를 지내고 산신이 내어준 성물(聖物)임을 의미한다. 성스러운 제물은 인간세계에서 기원을 위해 신에게 증물(贈物)하는 것으로 속과 성의 양 세계의 매개체가 된다.

신과 인간의 매개체로서이 제수가 실제로는 가축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산짐승임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동물관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속의 선행연구에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놀이로서 흥미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만 설명되고 있다.⁸⁾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축동물과 산짐승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수로서 사용되는 가축동물로는 돼지와 소, 닭 등이 대표적이다. 소와 돼지의 사육은 우경(牛耕)에 활용되고 배설물은 비료로서도 활용되기에 농경생활의 재산적 가치도 인정되지만, 제물로서 의례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소는 우경법이 보급 되면서 노동력으로서의 활용가치도 있지만 우경농경 이전에도 의례적이나 주술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의례적 활용가치에도 보다 의미를 둘 수 있다. 가축은 식용으로서도 활용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인간의 기축사육의 목적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로 종교·신앙 설⁹⁾, 둘째로 식용이용설¹⁰⁾, 셋째로 자연발생설¹¹⁾로 요약된다. 이러한 세 가지 설은 사냥거리의 모의사냥과 제물로서 가축을 사용하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자연발생설(우연발생설)은 일부 일본학자의 주장이며 학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실정이므로 제외코자 한다. 물론 가축동물로는 개, 소, 돼지, 염소, 산양, 닭 등 여러 동물이 사육되고 있으나, 이러한 가축들이 모두 동일한 목적과 과정을 거쳐 사육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와 돼지는 의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수이며 식용으로도 이용되기에 종교·신앙설과 식용이용설과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먼저 식용이용설부터 검토한다면, 소와 돼지의 육식이 식생활에서의 자리매김이 문제가 된다. 식생활은 일상식과 비일상식으로 구분되는데, 일상식은 일반적으로 장기보존의 방법과 함께 발달해왔다.

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굿놀이』(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5), 15~17쪽 참조.

9) 가축의 사육은 목적이 있어 행해진 것으로 신에게 공희(供犧)를 위해 기원된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학자는 독일의 Eduard Hahn, (1896, "Die haustiere und ihre beziehungen zur Wirtschaft des Menschen" Leipzig, Druckes Und Humbol.)이다. 에두어드 한은 수렵-목축-농경의 경제발전설을 반대하고 오리엔트지방에서 소의 사육목적이 달에 공희를 하기 위해 사육하게 되었으며, 소에 대한 신성한 관념에 따라 우경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10) 가축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면서 인간이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는데, 동물을 식용하면서 동물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축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문화학자인 Harris D.R, (1996, 「Domesticatory relationships of people, plants and animals」 Ellen, R. & Fukui, K. (『Redefining Nature』, PP437~463, BERG.)이다. 해리스는 인간이 가축을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육하게 된 것은 야생동물이 감축하게 되어 육식을 위해 가축단계로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11) 자연발생설은 秋篠宮文仁(2000, 『鶏と人』, pp57~70, 小學館.)에서 주장하였다. 秋篠宮文仁는 자연발생적 보다는 우발적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고 하며, 초기의 정착농경은 시행착오의 시대였기에 식량의 공급은 오히려 수렵채취민이 보다 풍부했기에 수렵과 가축을 직접 연계하여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공희를 목적으로 한다면 포획만으로 족하며 가축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육식을 일상식으로 하는 문화는 육류를 상하지 않고 장기보존하기위한 건조법·훈제법·냉동법 등이 발달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육류의 보존방법이 거의 전승되고 있지 않다. 즉 소와 돼지는 도축되어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육식은 비일상식으로서 공동체의례에서 제례 후에 신과의 공식(共食)으로 전승되어 왔기에 비일상식으로 육식이 자리매김 되어있다.¹²⁾ 육식이 일상식으로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사육기술이 발전되어 왔어야하며 육류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가공기술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가축사와 식생활사에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에서 소와 돼지의 사육은 식용으로 이용하기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즉 동물의 사육은 우선적으로 의례적으로 활용하기위한 목적이 식품을 확보하기위한 목적보다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한국의 가축동물의 사육은 앞의 세가지 설중에서 종교·신앙설과 가장 가깝다. 동물희생을 동반한 의례는 사냥을 통해 제물을 확보하고 이를 의례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가축사육이 발달하면서 사육해 온 가축을 제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냥법으로 포획술의 유무, 가축사료의 문제, 방목사육의 과정 등의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동물사육의 과정은 야생동물을 산채로 포획하여 반사육과정인 방목과정을 거치면서 야생동물로서 성격이 점차 없어지게 되면서 가축화가 이루어졌다. 가축동물의 대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 왔다. 사냥거리가 제례를 지내기 위해 의례적으로 행하던 의례적 사냥에서 놀이형태의 모의사냥으로 점차 변용된 것은 이러한 가축의 발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수가 야생수에서 사육수로 대응되는 과도기에 의례적 사냥이 모의적 사냥놀이로 점차 정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러한 논리접근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의례적 사냥이나 사냥에서 포획술의 유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역사기록을 통해 의례적 사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왕이 의례적인 사냥을 하고 이때에 얻은 사냥감으로 제사했다는 기록은『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고구려 고국양왕(故國壤王) 9년 3월에 국사(國社)를 세웠다. 항상 3월3일에는 낙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잡은 멧돼지와 사슴으로 천신(天神)이나 산천신(山川神)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있다.¹³⁾ 또한 『삼국사기』열전에는 온달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고구려에서는 봄철 3월3일이면 낙랑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그 날 잡은 산돼지·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山川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날에는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오부의 병사들이 따라 나섰다’고 한다.¹⁴⁾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왕이 봄에 산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축이 아닌 사냥으로 얻은 산짐승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삼국사기』고구려본기의 산상왕(山上王)12년의 기록에는 ‘제사용으로 사용할 돼지인 교시(郊豕)가 달아났다’는 기록으로 보아 멧돼지를 잡아 기르다가 제사용으로 사용할 돼지가

12) 임장혁, 2002, 「비교민속학적 시점에서 가축화와 동물공회」, 『文化財』, 제35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88~289쪽 참조

13) 三國史記, 卷第 32, 雜志, 第一 祭祀志.

14) 三國史記, 卷 45, 列傳.

달아났던 것을 알 수 있다.¹⁵⁾ 따라서 궁안에서 공물로서 사용할 돼지를 사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짐승은 자연신에 대한 제례에 제물로 사용되었다면, 가축은 왕실제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축의 역사에 고대 이전부터 멧돼지를 가축으로 사육하였음은 그물이나 함정 사냥과 같이 산채로 잡을 수 있는 사냥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돼지의 사료는 도토리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고고학적 연구 성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함정 사냥방법으로 알려진 ‘지암’은 산등성이에 원형이나 사각구멍을 파고, 입구에 풀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둔다. 함정 한가운데에 상수리나무를 깎아 세운다. 지암은 멧돼지를 산채로 포획하기 위한 방법으로 함정에 빠진 돼지가 나무위에 걸쳐서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포획한다.¹⁶⁾ 지암은 돼지의 다리가 짧은 특성을 고려한 사냥방법으로 가축의 발달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¹⁷⁾ 이러한 함정 사냥방법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은 한국의 고고학계에서 아직 발굴된 바가 없고 단지 함정이나 지암이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음이 민속학적으로 보고되어 있을 뿐이기에 때문에 역사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멧돼지가 사육되기 위해서는 산짐승의 포획방법과 사료의 확보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가축화는 식용으로 확보하기 보다는 의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보다 우선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냥거리가 단지 제물확보를 위한 모의적인 과정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만약 가축 동물과 산짐승이 동일한 동물관으로 여겨왔다면 의례적인 사냥은 모의적인 사냥으로 변용되지 않고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산짐승에 대한 동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물공희 의례의 해석에서도 제수로서 산짐승에 대한 동물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성스럽고 생명력 있는 제물로서 야생수

사냥거리는 모의사냥을 통해 제물로 마련된 집돼지가 멧돼지로 환유(換喻)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수의 환유적 표현은 가축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동물관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즉 가축의 사육이 정착되면서 가축동물과 야생동물의 동물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냥거리의 무가에도 나타나있듯이 야생동물은 산신의 소유물로 여겨져 왔으며, 산신의 소유물인 산의 야생동물은 생명력이 있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반구대 암각화에 나타난 동물의 생명선은 야생동물이 생명력을 갖은 존재로 여겨왔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동물이 생명력있는 동물관으로 여겨왔다는 증거는 찾아 보기 힘들다. 가축동물에 대한 동물관은 사육자의 목적에 따라 달리 한다. 소나 돼지의 새끼를 사육하

15) 三國史記, 卷 16, 高句麗本紀.

16) 문화재관리국, 197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전남편』, 서울신문사출판국, 363쪽.

17) 한국에서는 지암은 단순한 사냥법의 하나로만 여기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멧돼지의 사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북지방에서 주로 발굴되며, 시기는 조몽시대에 널리 행한 사냥법으로 여기고 있다. (佐々木高明 編, 1983, 『農耕文化の原流』, 日本放送出版協會, 265~267참조.)

는 농민은 가축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거나, 우경을 하는 농민은 소를 노동력의 제공자로서 여기며 재산적 가치로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야생동물과 가축동물은 동물관에서 차이가 있다.¹⁸⁾ 특히 가축동물이 산신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가축은 재산으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에 사육자가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생동물의 동물관은 사냥에서 사냥감을 얻으면 산신제를 지내는데 이를 통해 동물관을 엿볼 수 있다. 사냥감을 얻은 후에 지내는 산신제는 산신에 대한 감사와 살해된 동물에 대한 위령으로 표현된다. 현재까지 사냥에서의 산신제는 대부분 사냥감의 일부인 코나 귀, 혀 등을 산신에게 바치며 감사 뜻을 전한다. 한편 명확하게 속죄의 의미를 전하는 의례적인 표현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함경북도 산간지대에서는 곰을 잡으면 사냥꾼이 엉엉 우는 시늉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애달픈 소리로 중얼거린다. 이는 곰의 혼이 뒤따라와 해코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¹⁹⁾ 또한 올무에 잡힌 노루가 있으면 ‘땡’하고 소리를 낸 뒤에 노루를 거두는데, 이것은 노루가 총에 맞아 죽은 것이므로 사냥꾼에게는 죄가 없는 것으로 죄를 전가하고 있다. 사냥감을 얻고 운반할 때에는 두상운반을 해서는 안 되고 등에 메고 운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운반법이나 사냥꾼이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은 죽은 동물에 대한 두려움과 속죄의 의미가 담겨있다. 사냥감을 얻고 난 후에 산신제는 산신에 대한 감사의미와 사냥꾼이 속죄의 의미로서 죽은 동물에 대한 의령(慰靈)으로서도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지 인간의 영(靈)은 야생동물의 영(靈)과 동일하 것으로 생각될 수는 없다. 전승되는 민속의 질이나 양에서 차이가 나기에 성질이 다른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중간적 위치인 가축동물에 있어서는 영적인 존재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야생동물과 가축동물에 대한 동물관의 차이는 사냥거리에서 모의적 사냥을 통해 제수를 가축동물에서 야생동물로 환유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례에서 사용되는 제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동제에서 제수의 선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제수는 소는 황소가 좋으며 돼지는 흑돼지가 좋다고 하며, 제수는 수컷을 사용하며 거세되지 않은 것을 사용 한다.²⁰⁾ 제수로서 돼지가 흑색이고 거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멧돼지에 가까운 것으로 인위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제수의 선별은 곳이나 다른 제의에서도 대략 동일할 것이다. 제수가 수컷이어야 함은 산신이 여신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수렵인의 산신관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수에 관한 선별은 제수가 성스러운 제물로서 가축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생명력이 있고 영적인 동물을 의례적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사냥거리가 사냥을 통해 산짐승을 제물로 확보하였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8) 市川健夫, 2005, 「日本人の家畜飼養と野生動物とのかわり」,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第61集, 139~146쪽. 새끼를 생산하는 일본 농민은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여 도살을 한다든지 거세를 하는 관행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 김광연, 앞의 책. 352쪽.

20) 村山智順, 1937, 『部落祭』, 朝鮮總督府, 237쪽

가축과 산짐승의 동물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산짐승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여겨왔으며 때로는 인간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음은 수렵인의 산신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기에 속죄 또는 감사의 의미로 산신제를 지냈으나 점차 속죄의 의미는 사라지고 산신에 대한 감사의미로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 한편 인간이 소유하는 가축은 제사를 목적으로 사육하였으나, 산짐승과 같은 생명력을 갖은 동물이라는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재산적 가치로 사육해 왔다는 점에서 산짐승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냥거리는 사냥을 통해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제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의적인 과정이며, 타살·군웅거리에서 공희(供犧)된다.

다. 만신의 영험과 제수

삼각산 우이동 도당제는 무라야마지준(村山智順)의 『部落祭』에 처음 소개되고 있다. 우이동 도당제는 매년 음력 3월 초에 택일하여 행하여졌지만, 현재는 3월 2일로 고정되어 행하고 있다. 화주의 선정방법이나 제의형태와 구조, 무(巫)의식, 제물, 제당 등은 비교적 전통적 제의로 지속되고 있다. 제당은 신당으로 신바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이동 도당제는 안반고사·산신제·황토물림·도당굿·노구메 올리기 순으로 진행된다. 안반고사는 떡치는 안반에서 지내는 고사로 지금은 방앗간에서 떡을 치므로 교자상에 음식을 차리고 고사를 지낸다. 산신제는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시루를 각각 찌서 준비하고 산에서 노구메를 지어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제관, 화주, 동네사람들이 참여하여 유교식으로 지낸다. 다음날 아침 황토물림을 한다. 도당입구로 들어오는 우이천 다리에서 황토를 펴고 제물을 황토물림상에 차려놓고 부정을 친다. 부정을 친 후에 비로소 마을 사람들이 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다음에 도당굿을 하는데 굿의 순서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도당굿은 12거리로 처음의 부정거리와 마지막의 뒷전은 항상 동일하지만, 대개 가망청배·산맞이·불사거리·장군거리·제석청배·작두거리·제석거리·사냥거리·군웅거리·산신배웅·성주거리·창부거리·계면거리 순으로 진행된다.

우이동 도당제의 도당굿에서 사냥거리는 제석거리가 끝난 후에 지내는데 제장을 이동하여 굿당과 굿당의 위쪽 산으로 이동하여 무당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굿놀이 이다. 산신거리의 등장인물은 군웅할아버지, 이방, 문복쟁이, 말아범 등으로 구성된다. 무당은 군웅할아버지·문복쟁이·이방의 역을 맡으며, 마을주민은 물이꾼이나 말과 말아범의 역할을 맡는다. 우이동 도당제의 사냥거리는 군웅할아버지가 사냥을 나가 동서남북으로 활을 쏘며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사냥에서 사냥감을 얻지 못하자 이방과 문복쟁이에게 사냥감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문복쟁이는 장구제를 지내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일러준다. 군웅할아버지는 장구 위에 술과 떡, 돈을 놓고 사냥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낸다. 장구제가 끝나면 군웅할아버지는 문복쟁이가 가르쳐주는 방향의 산으로 사냥을 나간다. 주민들은 물이꾼이 되어 막대기를 들고 물이시늉을 하고, 군웅할아버지는 사방에 활 쏘는 시늉을 한다. 사냥감은 사냥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마을주민들이 미리 숨겨 놓는다. 사냥감이 있는 곳을

지목하면 화살을 쫓아 명중을 하였음을 표시한다. 사냥감은 노루와 꿩은 닭으로 대신하며 산돼지는 돼지머리로 대신하는데, 말아범은 군웅할아버지가 사냥한 노루와 산돼지를 각각 삶아지고 산을 내려와 고향에 바친다.²¹⁾ 사냥거리가 끝나면 돼지를 삶아서 군웅거리를 한다.

우이동 도당제의 사냥거리와 황해도 곳의 사냥거리와의 공통점은 사냥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산신제라 할 수 있는 장구제를 지내며, 사냥에서 얻은 사냥감은 군웅거리에서 제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냥거리는 군웅신을 위한 곳에 사용될 제물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

는 거리이며 황해도 곳과 우이동 도당제에도 공통된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한편 차이점은 황해도 곳에서는 미리 마련된 제수를 갖다놓고 이를 활로 쏘아 제물을 확보한 것으로 표현하지만, 우이동 도당제는 미리 마련된 제수를 감춰놓고 군웅할아버지로 가장한 무당이 이를 찾아내도록 하여 무당의 영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두 곳의 사냥거리에 등장하는 인물의 구성에도 차이를 보인다. 황해도 곳에서 상산막둥이의 역할은 산에 사냥감이 많은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이동 도당제에서 문복쟁이는 점쟁이로서 영력을 갖춘 인물로 등장하는 차이가 있다. 상산막둥이와 문복쟁이를 각각 별개의 인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들은 예지력이나 남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경계적인 인물로 사냥을 성공하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상산막둥이와 문복쟁이는 각각 배역은 다르다 할 수 있으나, 사냥놀이에서 동일한 기능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우이동 도당제에서는 마을주민이 사냥감을 감추어 만신으로 하여금 이를 찾도록 해 영력을 시험하는데 본래의 사냥거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주민은 무당에게 도당제를 의뢰하면서 무당의 영력에 대해 의심을 가졌을 것이고, 사냥거리가 놀이적인 형태로 발전되면서 무당의 영력을 시험하는 놀이로서도 행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김이숙은 『우이동 삼각산 도당제의 사냥놀이』에서 황해도와 동해안별신굿 그리고 우이동 도당제에서 행해지는 사냥거리가 생업의 하나인 수렵생활을 반영한 의례로서 수렵의 풍요와 호환(虎患)을 방지,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놀이로 보고 있다.²²⁾ 김이숙은 사냥거리가 전승되는 지역인 우이동이나 경기도 문산, 강원도에서 범굿과 함께 행해지고 있으며, 호랑이로부터 피해가 많은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따라서 사냥거리는 호환이나 액을 방지하고 사냥감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이자 놀이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냥거리가 생업으로서 수렵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호랑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사냥거리는 우이동이나 경기도 문산과 같이 산간지역에서도 전승이 되지만, 황해도 어촌의 대동굿에서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곳에서도 사냥거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산간 수렵인의 생업으로 사냥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 물론 사냥거리는 수렵민의 산신관이나 산신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냥거리를 수렵민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수렵민적인 산신관이나 의례가

21) 김이숙, 2006, 「우이동삼각산도당제의 사냥놀이」, 『牛耳洞 三角山都堂祭』, 三角山都堂祭傳承保存會, 도서 출판보고사. 286~290쪽 참조.

22) 김이숙, 위의 책, 283쪽

무속신앙에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범굿은 호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굿으로 사냥거리와 동일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이숙은 우이동이나 문산 그리고 동해안 범굿은 호랑이의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주민은 믿고 있으나 범굿의 기능과 사냥거리의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단지 황해도 사냥거리와 우이동 도당굿의 사냥거리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지만, 우이동 도당굿의 사냥거리는 무당의 영험을 시험하기 위해 행하는 차이점이 인정된다. 또한 사냥거리와 범굿이 모의사냥으로 행하는 굿거리로서는 인정되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전승되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재 황해도의 사냥거리에서는 호환방지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승되지 않으며 제수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범굿은 액을 방지하고 호랑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놀이로 호랑이사냥을 모의적으로 행하고 있다. 따라서 모의사냥이란 형태는 동일하더라도 액을 방지하기 위한 범굿과 제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냥거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별개형태로 전승되어온 모의사냥이라 할 수 있다.

3. 타살 · 군웅거리의 동물공회

가. 제수의 타살과 해체

사냥거리에서 얻어진 제수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 생 타살한다. 타살이란 말 그대로 ‘산 것이 살해를 당한다’는 의미로서 타살거리는 제수가 살해를 당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타살거리에 대한 해설은 학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정병호는 김금화의 대동굿에서 사냥거리가 만신이 칼을 가지고 춤을 추다가 돼지의 배를 따거나 동네사람들이 돼지를 잡는 것까지를 사냥거리로 보고 있다.²³⁾ 그러나 돼지를 잡는 것이 사냥거리에 속하는지, 아니면 타살거리에 속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굿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사냥거리와 타살거리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냥한 후에 제수를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양종승은 만구대택굿에서 타살거리를 ‘생타살거리’와 ‘익은타살거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²⁴⁾ 생타살거리는 사냥거리에서 잡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무당은 짐승의 피를 먹고 난 후에 신에게 제물로 올리는 육찬을 삼지창에 꽂아서 사슬을 세우는데 잘 세워지면 신이 흔쾌하게 받았다는 표시이다. 익은타살거리는 생타살거리에서 잡은 생고기를 뭇을 지어 두었다가 삶아서 신에게 바치는 거리이다. 생고기로 받은 신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령도 있기 때문에 익은타살거리는 삶은 고기를 받는 신령을 위한 거리이다. 고기를 바친 후에는 사슬을 세운다.

2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굿 놀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황해도 굿 놀이의 하나로 사냥놀이를 조사하여 제출한 보고서이다.

24) 양종승, 2003, 앞의 책, 45쪽 참조

양종승은 타살거리는 신에게 생고기나 익힌 고기를 올리는데, 무당은 생고기를 사슬에 올리기에 앞서 피를 먹는 것으로 타살거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하효길은 서해안 대동곳의 타살거리에 대해 ‘제수를 팔각떠서(동물을 잡아서 여러 부위의 곳곳을 떼내는 일. 떼어낸 고기는 익히지 않고 제물로 바침) 꼬리 달린 뒷다리 하나, 앞다리 하나를 남겨 놓은 뒤 내포일체를 삶아놓고 여러 감홍을 청배하여 올린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⁵⁾

타살거리는 제물이 의례적으로 희생되는 의례로서 일반적으로 동물희생을 동반하는 동제나 장례 또는 다른 곳에서 제물의 희생되는 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인 곳이나 제례에서는 의례가 행해지는 신성한 공간인 제장과는 구별이 되는 냇가나 우물가등에서 도살(屠殺)이 이루어져 제물을 준비한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의례가 행해지는 시간에 도살이라는 과정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시간이 설정되기 전에 도살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타살거리와 같이 곳이 행해지는 신성한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살은 다른 동물희생의례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동물희생을 하는 제례나 곳과 동일한 의례로 타살곳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타살·군웅거리는 무속 연구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군웅들의 위력으로 액을 막기 위한 곳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황해도 의 타살·군웅곳은 제물이 타살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군웅의 원한을 풀어주고 제물을 바침으로서 액을 막아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사냥거리에서 미리 마련된 제수인 산 돼지는 타살거리를 거치며 살해되며, 칼로 목의 동맥을 베어 살해되고 이때에 목에서 나오는 피를 모아두게 된다. 현재는 곳에서 도살을 할 수 없기에 살해되는 과정이 거의 생략되며, 미리 도살된 돼지를 제물로 사용한다. 사냥거리에 이어 타살거리가 행해지는데 사냥으로 얻은 돼지는 살해되어 해체되는데, 주로 8조각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서해안 대동곳에서는 이를 ‘팔각을 팔각을 뜯다’고 하여 동물을 잡아서 여러 부위의 곳곳을 떼어 내는데 꼬리달린 뒷다리 하나, 앞다리 하나를 남겨놓고 내포 일체를 다 삶아 놓고 여러 감홍에게 올려 진다. 팔각으로 해체되는 방식은 사냥에서 멧돼지를 잡으면 이를 여덟 조각으로 해체하는 것과 유사하다. 김광언은 사냥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냥이 끝나면 분배를 해서 나누어 갖는데 이를 ‘노느메기’라 하고, 멧돼지를 잡으면 인원수와 무관하게 여덟 조각으로 나누는데 이를 ‘팔쟁기’라 하고 있다. 팔쟁기는 머리, 목, 두 팔, 두 다리, 양 갈비, 등이다. 이 가운데 첫 손에 쏜 것이 뒷다리이고, 목(토심 목이라고도 한다)을 버금으로 찢다고 한다.²⁶⁾ 타살곳에서 팔각을 사슬에 올리는 해체방식은 사냥꾼이 해체하는 팔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냥꾼의 분배방식과 신에게 바쳐질 공물을 분배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타살곳이 수렵신앙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황해도 만구대택곳의 타살거리 무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²⁷⁾

25) 하효길, 2004, 앞의 책, 120쪽

26) 김광언, 2007, 『韓·日·中 시베리아의 사냥 狩獵文化 比較誌』, 민속원, 345쪽 참조.

27) 홍태한, 2006, 앞의 책 140쪽.

익은 고기도 천여근에 생고기도 만여근에
 이천 여근을 받으시던 타살감홍님 하월 받아
 익은 선지도 열두 동이 생 선지도 열두 동이
 스물네동이 안함을 받은 군웅에 마누라 하회를 받아

타살과정에서 제수를 살해할 때 피를 받아두는데 이를 선지라 하고, 위 무가에서 나타나 있듯이 생 선지와 익은 선지를 타살감홍에게 청배하고 놀린다. 타살거리에서 선지를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서해안 대동굿에서도 동일하다. 서해안 대동굿에서는 타살군웅거리의 무가에서 타살감홍에 올리는 내용으로 다음 같이 노래하고 있다.²⁸⁾

구람대도에 목을 지어기를 제
 앞 남산에 요를 주고 뒷 남산에는 깃을 주어
 네 통도리 겨죽을 맥여 털끝마다 입을 맞추어
 기름을 주고 물을 쥐서
 근에 달아 근에 차고 양에 달아 양에 차고
 준준히 백근이 넘게 산돼지 걸러내서
 인성대명 대주님 기주님 식신대명 남녀자손 대수대명 이느나
 앞다리 서각에 뒷다리 후각에 익은 선지 열두동에 생선지 열두동에
 스물네동이를 지고 놀고 안고 놀 제
 대양푼에는 소갈비를 띄고 소양푼에는 영계찜을 띄어
 양지머리 큰칼을 꽃아 길이갈비 넓이산적 받든
 만 감홍님들 아니드나

제수로 희생되는 돼지는 멧돼지로서 물과 기름을 주어 남산에서 길러낸 것이다. 제물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앞다리와 뒷다리 그리고 생 선지와 익은 선지 각각 열두 동을 지고 안으며 양지머리에는 큰 칼을 꽃아 여러 감홍에게 바치고 있다. 멧돼지를 날카로운 타살칼(군웅칼)로 해체하고 사슬을 세우는 것은 신이 희생된 제수를 꽤히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에 제물은 신에게 바치는 공물이라 할 수 있다.

사냥거리에서 마련된 사냥감은 제물로서 타살·군웅거리에서 타살되고 군웅풀이가 이어지면서 신령에게 바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며, 타살은 왜 하여야 하며 죽음은 무엇을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타살·군웅거리를 이해하는데 에드먼드 리치(Leach, E.R)의 공희이론이 참고가 된다.²⁹⁾ 리치는 신에게 증물(贈物)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동물살해

28) 하효길, 2004, 180쪽.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은유의 연합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자(死者)의 영(靈)은 ‘이승’이라는 일상성으로부터 경계영역의 비일상성으로 옮겨져 새로운 전환에 의해 ‘저승’에서 불멸의 신이 된다. 즉 도살된 제물의 영은 일상세계를 이탈해 경계영역을 거쳐 비상상계의 세계의 신과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세계의 인간이 비일상세계의 신에게 증물을 하려한다면 증물의 혼, 즉 형이상학상의 실체인 사자의 혼이 이동하는 경로를 통해 운반하게 된다. 따라서 증물의 형이상학 실체를 육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이를 살해하는 것이며, 그 실체를 장례와 같은 의례를 통해서 저승에 이행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치의 공희이론은 증물에 대한 호수성(互酬性)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물의 의례적 타살과 해체의 의미, 공물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타살거리에서는 만신이 군웅푼이를 한다. 군웅신은 원한이 맺혀 죽은 신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타살한 돼지의 피와 간을 먹기도 하며, 막걸리를 입에 넣었다가 제수에 뱉어 내뱉기도 한다. 군웅푼이는 제수로 마련된 멧돼지의 피를 이용하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돼지를 타살하기 위해 돼지의 목을 제고, 피를 받고나면 돼지를 어ms다.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에서는 사냥거리에서 제물로 쓰일 소와 돼지를 잡기 전에 어르기 위해 무당과 상산막둥이가 같이 어울려 소를 올라타기도 하고 소의 주위를 돌면서 소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³⁰⁾ 무당이 돼지를 어르는 것은 타살하기 전후에 달래는 과정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돼지에 삼치창을 꼽거나 신칼을 꼽음으로서 어른다. 돼지를 어르는 양의적 행위는 사슬 세워서 신의(神意)묻는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제물로 사용되는 돼지는 사냥을 통해 산신이 내어준 성스러운 제물이지만, 타살되면서 당연히 원혼을 갚을 수 있는 제물이기도 하다. 제물인 돼지를 살해하고 이때에 나오는 피를 받아놓고, 팔각을 떼어놓고, 나머지 돼지의 육신이라 할 수 있는 몸통을 각각 분리하여 받아놓는다. 타살되면서 출혈되는 피는 두려우며 부정의 대상이며, 한편 산신의 영역에서 가져온 성스러운 제물의 피 이다. 이렇게 만신이 군웅의 원혼을 풀기위해 정(淨)과 부정(不淨)의 피를 마시며 것은 애매하고 경계상황에서의 행동이기도 하다. 또한 타살거리가 신에게 공물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타살거리에서 군웅신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한 과정은 정상적인 신과의 소통에서 이탈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주연(周緣)적 위치에 이루어지고 있다. 타살거리에서 이러한 타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군웅푼이는 제수를 타살하고 해체하며 이루어지는 만신의 의례적 양의(兩義)적 의례행위는 타살거리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³¹⁾

타살·군웅거리에서의 의례적인 도살은 제물의 혼을 통해 군웅과 접하기 위한 은유적 표현이다. 타살거리에서 무당이 도살하며 받은 제물의 피를 마시거나 군웅대의 피를 빼는 것은 제물의 영과 군웅과의 접하였음을 상징한다. 한편 무당이 군웅을 풀기위해 막걸리를 제물에 뱉어대는 것도 이러한 영적

29) Leach, E. R., 青木保, 宮坂敬造 譯, 1981, 『文化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紀伊國屋店, 167~168쪽 참조.

30) 하효길, 2002, 『중요무형문화재 제8-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화산문화. 118쪽.

31) 하효길, 위의 책 120쪽, 참조.

교류로 해석된다. 도살된 제물의 영(靈)은 도살됨으로서 원혼으로서 원한 맺힌 군웅의 신령과 접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슬을 세우는 군웅에게 제물을 공물로 제공하는 의례적인 표현이다. 또한 터주신과 마당신 등 다른 신에게 제물의 일부를 올리며 인간계에 안녕과 풍요의 기원을 전해주기를 기원한다.

타살·군웅거리에서 무녀가 목을 재며 신령과 접하였음을 알리고 타살감응이나 군웅과의 영적인 교류는 제물의 희생과정에서 교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웅이나 타살감응과 같은 신령은 굿의 제단에 모셔진 여러 신들과는 차이가 있다. 즉 신령들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재앙을 막아주고 안녕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신령들로서 이들과의 영적인 교류를 위해 굿에서 타살·군웅거리가 위치하고 있다.

나. 공물(供物)로서 제수(祭獸)

황해도 굿에서 타살거리와 군웅거리는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거리를 각각 구분하여 논하기는 어렵다. 서해안 배연신굿에서는 타살거리에서 무녀가 홍치마에 초록쾌자를 입고 홍관대에 걸립을 쓰고 나온 다음에 갓으로 바꿔 쓴다. 군웅거리에서는 무녀가 홍관대에 검정 머리 수건을 쓴 다음에 걸립을 쓰다가 다시 갓으로 바꿔 쓴다. 거리에 따라 무당은 무복을 바꿔 입으며 굿을 하지만 이것만으로 타살거리와 군웅거리는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생타살과 익은타살거리로도 구분되는 희생된 제물을 생으로 올리거나 익혀서 올리는데 이는 제의의 과정이나 신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익은타살거리는 생타살거리에서 잡은 생고기를 묶을 지어 두었다가 삶아서 신령에게 바친다. 고기를 바친 후에는 사슬 세운다. 생타살군웅거리는 사슬에 돼지를 통으로 올려놓기도 하며, 팔각으로 해체된 여러 부위를 사슬에 꽂아 올리기도 한다. 통으로 올리거나 팔각으로 나누어 올리는 것을 각기 다른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즉 팔각으로 해체된 것을 올리더라도 이는 한 마리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통돼지를 올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웅상 차림에는 막걸리 한 사발과 과일, 떡 등을 다섯 무더기로 놓는다. 군웅상과 사슬을 세우는 것은 모두 군웅에게 공물을 바치는 의미로 신에게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공물(供物)로 올리는 것이다. 타살거리에서 사슬 세운 후에 군웅배를 찢는데 원혼인 군웅을 달래고 난후에 길을 내주어 군웅을 전송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해체된 제수의 각 부위는 다른 거리에서도 공물로 사용 된다.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의 터주거리에서는 집이나 마을의 터주신에게 술과 떡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여러 터전을 다니면서 터주신을 위하여 춤을 추어서 터주신이 화나지 않도록 달랜다. 마당거리는 일명 ‘뒷풀이’라고 하는데 소놀음굿에서 마지막 거리이기도 하다. 마당거리는 제상 위에 돼지머리를 놓고 쟁반에 과일과 떡을 옆에 놓고 굿을 하는데, 마당에서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 잡귀와 잡신을 돌려보내는 거리이다. 끝으로 무당과 참여자들이 모두 어울려서 한바탕 춤을 춘다. 타살거리에서 희생되는 제물인 돼지는 군웅이나 장수에게만 바쳐지

는 것이 아니라 터주신이나 지신(地神)에게도 사용된다. 희생된 제물은 육식을 하는 신으로 여겨지는 토지신이나 자연신 등 여러 신령에게 제공된다.

산각산 우이동도당제에서는 사냥거리에 이어서 군웅거리로 이어진다. 마부가 사냥거리에서 얻은 사냥감을 가져오면, 문복쟁이는 ‘삶아서 바치겠소, 날로 바치겠소?’하고 군웅할아버지에게 묻는다. 군웅할아버지는 ‘말랑말랑하게 푹 삶으되 맛보지 말고 삶아라’라고 답한다. 문복쟁이가 다 삶으면 군웅거리가 시작이 된다. 군웅거리는 마을의 액을 막아주기 위해 곳이다. 무너는 홍철릭을 쓰고 왼손에 삼지창과 오른손에 월도를 들고 군웅을 노는다. 돼지대지머리는 도당에 올리고 닭은 만신이 가져가기도 한다. 군웅거리에서 삶아 올리는 돼지머리는 희생적인 의미보다는 신에 대한 증물로서 사용되는 것이며, 제의가 끝나면 공식(共食)으로서 음복되기도 한다.

4. 맺는말

황해도 곳에서 사냥거리와 타살거리, 군웅거리는 동물을 제물로 마련하고 이를 희생시켜 군웅에게 바치는 과정을 의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공동체의례나 곳에서도 동물을 희생하여 신과 인간과의 교류를 하는 의례는 많지만, 황해도의 곳이나 우이동 도당제와 같이 제물확보에서 도살, 해체, 공물로 제공되기까지의 과정이 의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냥거리와 타살·군웅거리는 동물공회의 의미의 의례를 해석하는데 유의하다. 사냥거리는 우이동에서는 무당의 영력을 시험하는 의도도 담겨 있지만, 황해도 곳과 마찬가지로 미리 마련된 제물이 가축이 아닌 사냥을 통해 얻은 제물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냥거리는 무가나 사설 등에서 수렵민의 산신신앙(山神信仰)과 유사하며, 제물은 산신이 내어준 것으로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살해된 동물에 대한 위령이나 속죄의 식이 나타나있다. 즉 사냥거리에서 제물을 어르는 태도는 제물에 대한 양의성(兩義性)에 기인하는 것이다.

동물공회를 동반하는 의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은 제물의 도살이라는 희생적인 죽음에 대한 과도기의 양의적 성격에 대한 상징적 의미 때문 있다. 동물희생 의례의 과정은 대상동물을 도살하고 이를 신령에게 바치고 참가자들의 공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 과정 중에서 일부분이 의례상 강조되면서 의례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타살·군웅거리는 제물의 타살과 군웅풀이, 사슬세우기가 강조되고 있다. 타살거리에서 제물의 타살이라는 죽음은 인간세계가 아닌 타 세계의 군웅과의 교감을 위해 동물의 영을 이행시키기 위한 성스러우면서도 폭력적인 작업이다. 또한 도살과 제물의 해체는 이를 위한 제물의 영혼과 육체와의 분리과정으로 피와 심장이나 간, 그리고 육신인 몸체를 각각 분리하여 이를 의례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피는 군웅풀이에 사용하여 군웅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한다. 사슬세우기는 군웅에게 바치는 육신을 삼지창에 세워 바침으로서 군웅에게 공물을

제공하며, 인간의 의지를 수용하였음을 확인 하는 의례이다. 이러한 동물공희의 과정은 제수의 확보하고 해체하고 난 후에 신체일부의 의례적으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렵신앙이나 의례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공희의 의례에 의미를 부여의 작업은 의례의 과정에 따라 해석을 해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동물공희 의례를 해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금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황해도 평산소놀이굿』, 대흥문화사.
- 김광언, 2007, 『韓・日・中 시베리아의 사냥 狩獵文化 比較誌』, 민속원.
- 김이숙, 2006, 「삼각산 우이동 도당제의 사냥놀이」, 『牛耳洞 三角山都堂祭』, 三角山都堂祭傳承保存會편, 도서출판 보고서.
- 문화재관리국, 197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全南編』, 서울신문사출판국.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굿놀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5, 계문사.
- 양종승, 2003, 「황해도굿」 『한국의 굿』(하효길, 양종승, 문무병, 홍태한, 이경엽, 안상경 공저), 민속원.
- 임장혁, 2002, 「비교민속학적 시점에서 가축화와 동물공희」, 『文化財』제35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하효길, 2002, 『중요무형문화재 제8-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화산문화.
- , 2004, 『풍어제무가』, 민속원.
- 홍태한, 2006, 『한국의 무가 6 황해도무가』, 민속원.
- 市川健夫, 2005, 「日本人の家畜飼養と野生動物とのかかわり」,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第61集, 國立歴史民俗博物館.
- 佐々木高明 編, 1983, 『農耕文化の原流』, 日本放送出版協會,
- 村山智順, 1937, 『部落祭』, 朝鮮總督府.
- 秋篠宮文仁編, 2000, 『鶏と人』, 小學館.
- Eduard Hahn, 1896, “Die haustire und ihre beziehungen zur Wirtschaft des Menschen“ Leipzig, Druckes Und Humbol,
- Eliade, Mircea, 1987, 『The Encyclopedia of Religion』(12),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Harris D.R, 1996, 「Domescatory relationships of people, plants and animals」 Ellen, R.& Fukui,K. 『Redefining Nature』. BERG.
- Leach, E. R, 青木保, 宮坂敬造, 譯, 1981, 『文化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紀伊國屋店.

Abstract

Mock Hunting(Sanyaggeori) and Animal Sacrifice in Exorcism

Im, Jang-hyu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olklore, Chungang University)

Animal sacrifice is common in some Korean ceremonies, both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Exorcism rituals of Hwanghae-do, the Sanyang[hunting]-geori, Tasal[killing]-geori, and Gunwung[king]-geori, all prepare, sacrifice and offer animals to the king. This study observes this ceremonial process of the Hwanghae-do.

The Tasal-geori and Gunwunggeori of Hwanghae-do exorcism is useful for explaining why animals must be sacrificed. The Sanyanggeori, which appears in war songs or heroic tales, presents a sense of the hunter folks'belief in the mountain god. To demonstrate their sense of gratitude towards the mountain god,the hunter folks presented offerings by first, giving animals to certain people who in turn will kill the animal to pacify the soul of the killed animal and be forgiven for the act of killing. The fact that the offering is coaxed in Sanshingeori can be explained by such duality of meaning.

It is difficult to truly interpret these ceremonies that involve animal sacrifice because of the ambivalence of the meaning of the killings, and therefore the sacrificial death of the animal. The process goes through three stages – the killing of the animal, the offering, and the [] of the participants, and one of these three stages is emphas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a certain ceremony. In Tasalgeori and Gunwunggeori, the emphasis is on the killing of the animal and the raising of the spear. In Tasalgeori, the death of the offering is a sacred and violent practice that was believed to carry the soul of the animal to the other world. This was done to build a connection between the humans and the Gunwung's of the other world. The animal being offered is violently dissected as a preparatory process for sending its soul. The blood, the heart or liver, and the body are separated and used ritually. The blood is used for Gunwungpuri, a ceremony observed to appease thebroken heart of the king. A certain body part of the animal is placed on a spear and raised as an offering to the king. The king's intention to accept the gift is then affirmed.

Keyword: mock hunting, offering of animal, [wild tree], domestic stock, wild trees, game, Gunwunggeori, Tasalgeori